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2 고린도 5.2)

구 요비 욥

옛날에 어느 마을에 산 마루터 고개는 3년 고개라고 불렀는데 누군가 거기에서 넘어지면 3년 밖에 못산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그 고개를 넘어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는 크게 낙담하여 집에 돌아오자마자 병이 들어 몹저 눕게 되었습니다. 점점 병이 깊어가자 그는 어느 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3년 밖에 살수 없는 자기의 운명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은 어린 손자가 '에이 할아버지 나하고 같이 그 산 마루 터에 가자. 거기서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아니 10번 넘어지면 30년을 더 살게 되는데, 무얼 그리 걱정해? 하고 소리치며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손자 손에 이끌려, 그 고개로 가서 실컷 땀굴고 돌아오니, 곧바로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전설의 '삼천갑자 동방삭'처럼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우화의 출전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시간의 저편인 '영원'을 묵상할 때면 이 이야기가 자주 떠오릅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은 바로 현재 안에 숨겨져 있고, 영원은 오늘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때, 이에 대비되는 영원함은 하느님에게 속해있는 하느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영원성(영원한 시간)이 하느님에게 속한다면, 시간은 하느님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하느님은 또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은 늘 '영원한 오늘'이신 하느님 안에 감싸여 있고 하느님의 시간 안에 속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 안에 속한 시간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totus)을 표현하고 내어주고 나누어 주는 영역이자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 안에서 꿈틀거리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과 희망은,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의 온갖 풍요로운 생명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생물학적 의미의 시간의 지속이 영원한 생명의 실현은 아니니, 이런 면에서 무병장수(無病長壽)가 행복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성 안에 들어올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서고 그분 안에서 살아 갈 때에,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은, 늘 바로 지금 오늘,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매일 바치는 성무일도서는 시간의 기도라고 하는데 교회는 매일 아침 '아,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프리바에서 처럼' (시편 95.8) 하고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네 말로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2 고린도 6.2)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루가 4.21),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루가 19.9),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지금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2 고린도 6.2)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업문화교육원 지도신부>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이 삼천리, 아니 반쪽 삼천리 방방곡곡을 수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선의 전·후방을 가릴 것 없이 병영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운동장에까지 느낌표를 동반한 "때려잡자 김일성!"의 입간판이 어김없이 버티고 서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당시 한 번도 이를 이상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늘 그렇게 서 있었을 뿐, '피 땀한' 그 구호가 필자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개도 아닌 사람을 잡자는데, 그것도 때려서 잡자는데…… .

성신대학 사목관 감실 앞에 꿇어앉아 구 신부님께서 주신 성서 구절을 묵상하려고 애를 쓸 때 아주 사소한 것들이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모기였습니다. 묵상이 잘 안 될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묵상이 잘 될 때는 모기가 있는 줄도 모른 채 하느님과 깊은 대화에 몰입할 수 있었으니, 모기는 묵상이 안 될 때만 골라서 저를 공격했던 모양입니다. 성체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기가 달려들기만 기다립니다. 감실에 주님이 계시던 마시던, 그건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듯이 저는 모기의 예고 사이렌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딱 소리를 내면서 왼손이 오른쪽 손목을 힘차게 때리지만, 녀석은 나를 비아냥대듯 훌쩍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디 또 오기만 해봐라……. 웨잉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왼쪽 손목에서 신호가 옵니다. 오른쪽 손바닥이 달려가 찰싹 소리를 냅니다. 드디어 "때려잡은" 것입니다, 모기를. 현대 하필이면 왜 이 순간에 "때려잡자 김일성"의 구호가 생각난단 말입니까? 모기를 때려잡은 쾌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왜 죽은 김 일성이 갑자기 저를 괴롭히는지 내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연병장 변두리에 튼튼한 각목 두 개를 적정 간격으로 나란히 박아 세웁니다. 페타이어 하나를 두 동강 내서 서로 불을 달게 한 다음, 그것을 먼저 세운 기둥 사이에 고정합니다. 이 때 잘린 타이어 조각의 둥근 부분이 연병장의 중앙을 향하게 하고, 잘린 자국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판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 사람의 가슴이 타이아의 중앙부쯤에 오게 하고, 얼굴은 타이어 조각의 상단 위로 살짝 올라오게 높이를 조정 합니다. 이렇게 만든 구조물이 흔히 볼 수 있었던 총검술 훈련대의 전부였습니다. M1 소총 끝에 시퍼런 단검을 꽂은 병사가 훈련대를 향해, 아니 죽여야 할 상대방의 가슴을 향해 힘차게 돌진합니다. "찔러 총!"의 섬뜩한 구령에 병사는 곧추 세운 칼끝을 두 쪽 타이아의 중앙 간극에 깊숙이 꽂아 넣습니다. 이것이 장교 후보생 홍 승수가 1965 년과 1966 년 두 해 여름, 수색 30 사단 연병장에서 받았던 총검술 훈련의 개요입니다. 그것으로 총검술과의 인연이 아주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육군 소위로 임관한 홍 승수가 이번에는 병사들과 함께 했던 총검술 훈련의 핵심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965 년 3 월 초부터 1967 년 6 월 말까지 제 생활의 단면을 군대 생활의 여적이라니 하고 무심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 땐 그냥 훈련이었을 뿐,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실은 그 어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1978 년 봄에 귀국했습니다. 그 해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께서 저를 당신의 차에 태우고 양수리를 지나 홍천을 향해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홍 선생, 저기 저것 좀 봐." 가리키는 선배의 손가락 끝에 "때려잡자 김일성!"의 얼굴이 타이어 뒤에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60 년대와 같이 흔하지는 않았지만 70 년대 말에도 총검술 훈련대는 심심치 않게 들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때 비로소 저는 "때려잡자"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때려잡자"와 "돼지를 잡다"의 "잡"은 같은 어원을 갖는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구호가 그 때 비로소 저 자신의 몰인간성을 일깨워줬던 것입니다. 일곱 해 외국 생활이 제게 가져다 준 변화라면 변화였을 것입니다.

낙산 감실 성체 등의 흐릿한 불빛에서도 저는 때려잡은 모기의 혈흔을 제 손목에서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너 자신의 피라고 애써 타일러 봤지만 그건 소용없는 일. 희생된 모기의 피도 약간은 섞여 있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낙산에는 선한 모기만 모인다고 믿고 있었기에 '자꾸 내밀던 그 고개'가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모기가 선하다니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시겠조. 아시다시피 모기에 한 번 물리면 독의 효과가 수 시간은 가는 게 보통입니다. 아주 악독한 녀석의 공격을 받으면 며칠씩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낙산 모기의 독은 그 위력이 길어야 한 시간이었고, 묵상이 잘 이어지면 반시간이면 모기가 찌른 침의 자국은 온데간데없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낙산 모기들이 선한 모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낙산의 모기가 왜 선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착하다 착한 우리 학사님들의 '피'를 먹고 살기 때문이라합니다. 그런데 제가 피세정념(避世靜念)에 든답시고 낙산에까지 와서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을 때려잡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 하지 않던 이 사람의 독한 피를 그만 그 선한 모기들에게 먹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13절)

본격적으로 여름 피서철이 시작됩니다.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우리 각자에게 오늘 복음의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싶은 갈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주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느라 늘 분주하시지만 자주 이렇게 '외딴 곳으로 물러 가십니다.' 주님에게 이 '외딴 곳', '물러나심'은 하느님 아버지의 품안(요한1,18)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에 머무름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볼때 엄청난 기적의 출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십니다.'

나 자신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외딴 곳으로 물러날때 역설적으로 인간본래의 모습인 이웃과 자연과 세상을 파스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민의 정(compassion)을 되찾을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굶주려있는 백성의 실상(realitas)을 바라 보시며(관상하시며) 아버지 하느님이 지니신 한없는 자비를 느끼십니다

* <퇴거의 순교자 권철신 암브로시오>

-예수님 따라 퇴거하면서, 자기 것 내어 놓아, 빠스카 신비-수난의 전조인 빵의 기적을 만나다-

-권철신은 i영혼-4 行-흠숭주제i설은 지극한 이치가 있음을 알고, 세례 받은 후(全家信從), "(모든 민족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수님을 따라, 황량한 곳으로 물러가서(퇴거) 제자들의 서학을 중지시켜야 생명-가문을 지킨다는 말에 답한 편지 글에서 성리학 토론으로는 실제로 얻는 것이 없어, 앞으로는 입 다물고 홀로 수양하겠다고(嘿以自修) 함으로써 "(때가 이르지 않아) 들으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다" <退去自修>

-예수님(초기교회)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놓으셨는데 가문의 지위, 학자의 명성. 집안, 제자 등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자비의 눈길로 인한 (빠스카 신비, 수난 전조) i빵의 기적i도 만나셨을까

제자 율유일은 주문모 신부 모심, 정광수는 김건순-이중배 영입 드러나 주목받은 신자 중, 배교라는 전력없이 순교에 이른 드문 분

*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하고 판단하곤 한다. 역시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다고 주님께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다. 그러나 주님은 찬미드리고 나누어 주시는데 오천명이 먹고도 12 광주리나 남았다고 한다.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이 빛나 보인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는 팬스레 걱정하고, 되니 안되니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님께서 해 주신다고 믿으면 해결 될 일을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이 안스럽다.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준다고 얼마나 믿고 있는 것일까? 원하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갖고 주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리곤 하였는지?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내 마음 속에서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말 같지 않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지도 말라고 단칼에 찔러 버렸을 텐데. 그 모습이 현실적인 나의 모습이다. 이제부터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나의 판단 보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작은 기적을 일으키도록 맡겨야겠다. 사실 기적도 숨겨진 현실이라고 생각이 든다. 마음 먹고 서로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마음 속 깊이 와 계실 때 주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어 보이는 것이 한 걸음 떨어진 먼 발치에서 보면 기적이 아닐까 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일치하여 있으면 그 기적이, 아니 그 불가능이 현실로 우리 마음에 이미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든다. 기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항상 와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나의 판단을 포기할 때 주님과 항상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일 것이다. 나의 판단을 하기 전에 주님께 의지하여 말하는 생활의 지혜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참제자복음나눔터; <http://cafe.naver.com/charmjejagoodnews.>>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표**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 이웃 사랑의 실천과 배움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thomyang@intecko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08. 9. 27.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107	622,792,000	643	403,480,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가톨릭 명동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4억 원 중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월27일 현재 총 3억1,000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진입로 공사 및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주위에 권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일 12시 정오에 참제자 회원 모두가 참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중기도 후 참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또는 주모경 및 어떠한 화살기도도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7 월 26 일 (토) 오후 3 시 호주 시드니의 세계 청년대회 (7/15-7/20)에 참석하신 후 프랑스 생드니 교구장이신 오 영진 올리비에 주교님과 환영미사와 간담회가 프라도의 집에서 80 여명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귀국하신 오 주교님을 성황리에 환영하며 진행 되었습니다.

* 8월15-16일 포항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 가족캠프를 포항의 덕동 청소년회관에서 참제자 회원 30여명과 마리아의 집 가족 100여명이 참석하여 우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 8월 23-24일 프라도의 집에서 연인원63명이 참석하여 ;용기를내어라.나다, 두려워 마라; (마태오14-27)라는 주제로 구 신부님의 주제강의와 김영자 글라라님의 ;시적 영감; 발표와 이 종원 비오님의 신앙체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 9월 6일 홍천군 모곡리 임야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옥수수 축제가 30여명이 참여하여 모곡리 임야 등산과 산책 후 축제와 감사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봄에 옥수수 종묘를 기증하여 주신 박 동수 안드레아 형제님께 감사 드립니다.

* 강은주 루시아 자매님의 ;성물 채색; 전시회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명동 평화화랑에서 개최되오니 채색성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계획**

- 12월13일 -14일 ; 동계 피정 (프라도의 집)

- 매주 토요일 15시 성체 조배와 나눔 및 미사
15시 - 16시 ; 성체 조배
16시 - 17시30분 ; 나눔
17시30분 - 18시30분 ; 특전미사

- 매일12시 정오 ;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 및 화살기도

*** 운영위원회 조직**

자문위원 ; 진교훈, 황적인, 김선규, 최한국, 지희용
홍승수, 김영자, 정영란, 김정임, 국옥희
이상윤, 최창주, 정태진

추진위원장 ; 양명신

총무분과장 ; 백영국 (봉사; 홍순숙, 시설; 김동성)

전례분과장 ; 박광용 (전례; 안상용, 제대; 김정숙)

구역분과장 ; 문수정 (백영국, 홍순숙, 손 수, 양명신)

재정분과장 ; 양명신